

마실가듯 걷는 짙막한 길엔 천년불심 도량이...

④ 북한산 '마실길' 그리고 진관사, 삼천사

'길'도 운명이 있을까. 숲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하늘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강물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도량을 가지고 태어난 길이 있고, 그렇게 길이 놓인 곳에 길을 따라온 것들이 있다. 긴 가을 끝에 내리는 비가 길을 적시고 있다. 길은 '마실길'이란 이름이 붙은 북한산 둘레길(9구간)이다. 마실길은 진관생태다리에서 방패교육대까지의 길로 전체 거리가 1.5km인 북한산 둘레길 구간 중 가장 짧은 길이다. 웬지 이 짙막한 길이 운명이란 말을 떠오르게 한다.

마실길은 8구간 구름정원길이 끝나는 진관생태다리에서 시작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진관동 하나고등학교(진관사 입구)까지 간다. 하나고등학교에서 약 200m 거리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있고 건너편에 진관생태다리가 있다. 마실길은 이 구간만 따로 떼어서 걷는 것보다는 다른 구간과 함께 걷는 것이 좋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길의 대부분이 산길이나 대로변의 블록길이다. 그야말로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다녀오세요' 길이다. 길이 짧아서 부담은 없지만 산길을 느끼기 어렵다. 8구간이나 10구간을 묶어서 걷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마실길은 깊은 산맛을 느낄 수 없는 대신 유서 깊은 두 도량을 만날 수 있다. 진관사와 삼천사가 둘레길 가까이 있다. 먼저 마실길 3분의 1지점에서 둘레길을 벗어나 진관사로 오르면 된다.

진관사로 오르는 길에는 조선왕조 화의군의 묘가 있다. 묘비에는 세조의 여섯째 아들이었던 화의군이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죽음을 당하고 이곳에 묻혔다는 짧은 글이 적혀있다. 화의군의 묘를 뒤로 하고 약 200m 정도 오르면 진관사다. 지난 해 개산 천년을 맞은 진관사는 왕실과의 인연으로 생긴 도량이다. 고려 현종은 보우에 오르기 전인 대량원군 시절에 진관대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임금의 자리 오른다. 왕위에 오른 현종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스님께 절을 지어드리고 진관사라 했다. 비껴갈 수 없는 일을 운명이라고 하지만 불교 가르침에 운명은 없다. 진관대사로 현종도 진관사로 하루하루가 모두가 인과일뿐이다. 진관사는 그렇게 산문을 열었다. 그했던 비가 제법 굵게 다시 내린다. 도량에서 행사가 있는 것 같다. 총무 스님(법혜)이 바쁘시다. 외국인들이 도량을 찾았다. 한국문화체험을 위해 진관사를 찾았다고 한다. 손님을 치르고 나서 법혜 스님이 한숨 돌리자마자 차 한 잔을 내어오셨다. 들어와 앉으니 빗물에 젖은 도량이 이제는 빗소리에 젖는다. 마당엔 우산 속의 스님이 부처님 마지를 들고 빗속을 걸어간다. 녹차 한잔을 입에 물고 비 내리는 도량을 바라본다. 나도 젖고 도량도 젖는다. 마실길과 진관사는 길도 험고 도량도 깊지 않아서 비오는 날 가



북한산 둘레길 '마실길'을 걷다보면 고려 현종이 목숨을 건져준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운 진관사가 나온다. 스님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리고 있다.



한국탑 최초로 아쇼카왕 석주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린 삼천사 '세존진신사리 9층탑'

북한산 둘레길 중 가장 짧은 길 가까이 유서깊은 도량 있어 임금이 보은 진관사 아쇼카왕 서원 옮겨온 삼천사

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마음 적실만큼 비오는 날 마실길 걸어 발 적시고 진관사 홍제루 회랑에 걸터앉아 젖고 싶은 만큼 비 바라보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빗속을 걸어가던 스님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린다. 차 한 잔 다시 물고 비 내리는 도량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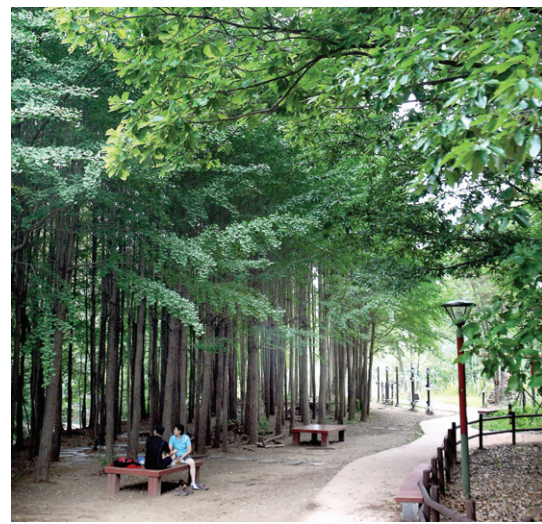
비가 그치고 햇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관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을 200m 정도를 걸으면 삼천사 입구다. 입구에서 약 1km정도 올라가야 한다. 삼천사는 661년 신라 문무왕 1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이후 사적이 전하지 않아 절의 자세한 역사를 알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한 때 3000명의 대중이

살았을 정도로 번창했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집합소였으나 화재로 인해 도량이 소실됐다. 훗날 진영 스님이 중창했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다시 화재로 인해 소실된 도량은 1978년 성운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지 성운 스님은 지난 5월 세존 진신사리 3과를 봉안한 '세존진신사리 9층 석탑'을 세웠다. 탑에는 한국탑 최초로 아쇼카왕 석주의 '4사자상'을 상륜부에 올렸다. 아쇼카왕의 석주는 아쇼카왕(재위 기원전272~232)이 불법을 널리 퍼기 위해 세운 탑으로, 평화와 생명존중의 정신이 담겨있으며, 상륜부에 올린 4사자상은 아쇼카왕을 상징한다. 성운 스님은 그 옛날 아쇼카왕의 마음을 그대로 도량에 세우고 싶었던 것 같다. 한국의 삼천사라는 도량에 인도 아쇼카왕의 4사자상이 세워질 것을 누가 알았을까. 삼천사에는 보물(657호)이 있다. 삼천사 마애여래입상이다. 대웅보전 뒤쪽으로 둘러진 계곡의 병풍바위에 모셔져 있다. 천 년이 넘는 불상이다. 마애불은 법당의 불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산새가 날아와 앉고, 솔바람도 스쳐가고, 중생들 웃고도 끊임없이 스쳐간다. 진관사와 삼천사 모두 왕이 지키고 있는 도량인 셈이 됐다. 삼천사를 뒤로 하고 다시 둘레길에 들어섰다.

다시 비가 오락가락한다. 삼천사는 진관사보다 좀 더 산 속으로 들어가 있는 도량이다. 진관사가 산 속 깊이에 있지 않아서 시원하고 정갈한 느낌의 도량이라면, 삼천사는 산세에 맞춰진, 풍광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단비 내리는 어느 여름날, 마실 나온 짙막한 길에는 불심깊은 왕들의 도량이 있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마실길'은 블록길이나 진관사 입구부터는 숲길이다.



보물 657호 삼천사 마애여래입상



<북한산 마실길> 삼천사, 진관사, 진관공원지킴이, 진관사입구, 방패교육대, 하나고등학교, 은평뉴타운, 진관생태다리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모집

불교의식 가운데 범패는 진리를 노래하고, 불교무용인 작법무는 진리를 춤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문화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능화스님을 모시고 불교무용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교무용 마스터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불교무용 마스터 과정 특강	불교무용 및 불교실용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강일시 _ 2기 : 2012년 7월 9일~7월 25일 / 3기 : 2013년 7월 8일~7월 24일 ※강의시간 _ 매주 월·화·수요일 14:00~18:00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강료 _ 기당 120만원 ※교수진 _ 능화스님(예능보유자), 인화스님, 전경화, 박은하 ※교육대상 _ 제한없음, 무용전공자, 스님 ※교재명 _ 능화 『한국의 불교무용』, 『다계나비춤』, 『천수바라춤』 ※강의내용 _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특전 _ 수료후 인천무형문화재 범패와작법무 이수평가 시험 응시자격부여 (응시자 전원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강일시 _ 2012년 9월 3일(월) 14:00, 16:00 (서울) / 2012년 9월 6일(목) 14:00, 16:00 (일산)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 일산) ※수강료 _ 1학기 40만원 ※교수진 _ 능화스님, 인화스님, 전경화

한국전통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강일시 _ 2012년 9월 4일(화) 13:00 (입문반) / 2102년 9월 4일(화) 15:00 (전문반) ※강의장소 _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일산) ※수강료 _ 1학기 40만원 ※강의내용 _ 한국무용기초, 입춤, 태평무, 장고춤 ※강사 _ 박은하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edulife.dongguk.edu>
서울 T. 02-2260-3728~3730 / 일산 T. 031-961-5322~3

범패와작법무보존회 <http://www.nunghwa.org>
T. 032-884-8904

창사 19주년 기념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고품격 여름방학 특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출발가능)
양곤 바간 해호 6일 요금문의
출발일 : 7월 23일, 7월 25일, 8월 9일, 8월 16일, 8월 22일

- 미얀마 성지순례 *고품격 상품*
일정 : 양곤 바간 해호 6일 190만원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해호 7일 210만원
*전 일정 특급호텔(세도나, 프레저, 후펜) 가이드 기사 탑, 호스카(마차), 업그레이드 식사
- 중국 성지순례
장강도량(구화산, 황산) 7일 129만원 / 6월~7월
관음도량(보타산, 낙가산)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119만원 / 6월23일 요금문의
- 라오스 성지순례 고품격 6일 135만원

○ 인도 성지순례	9일 230만원
○ 스리랑카 성지순례	8일 210만원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방콕 I 파타야	5일 599,000부터
○ 백두산	6일 529,000부터

※ 전체 일정 모든 경비 포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